

SK그룹 주주총회

‘파이낸셜 스토리’ 대폭 수정... “수펙스 중심 업그레이드”



장동현 부회장, 주가하락 사과
“기업가치 높이기 위해서 최선”

장용호 사장, 사내이사 선임

SK그룹이 미래 성장 전략인 ‘파이낸셜 스토리’를 대폭 수정한다. ‘파이낸셜 스토리’는 2020년 최태원 회장이 처음 개념을 제시한 후 2021년 정립했는데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장동현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부회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제3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각 사별로 지난 2021년부터 모든 상황을 다시 리뷰하며 이를 토대로 파이낸셜 스토리를 업그레이드하고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 스토리는 최태원 회장이 2020년 확대경영회의에서 처음 개념을 제시했다. 이후 2021년 SK(株) 사장이던 장동현 부회장이 주도해 만든



SK 서린사옥 전경

/뉴스

미래 혁신 성장 전략으로 2025년까지 SK(株) 주가를 주당 200만원으로 올려 시가총액 14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주가는 2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주주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이같이 답했다. 장 부회장은 이번 주총을 끝으로 SK에코플랜트 부회장직으로 이동한다.

장 부회장은 “현재 기업가치가 당

시 목표(140조원)와 괴리가 크다는 것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 부회장은 SK그룹 친인척의 SK 주식 매각에 대해 “특수관계인인 하지만 개개인의 어떤 개인재산이나 권리 처분에 대한 이슈”라며 “여기서 적절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최근 최태원 회장 조카인 최성환 SK네트워크사업총괄 사장과 부인이 SK 주식을 꾸준히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장 부회장은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주도 아래 사업 정리 가능성과 관련 “지난 2021년은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였고, 당시 환경이 현 시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수펙스 중심으로 각 계열사 파이낸셜스토리를 재검토하고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부회장은 “지금까지 진행한 파이낸셜 스토리를 앞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논의해 6월 회의에서 공유하고 10월 CEO세미나(사장단 회의)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SK그룹 컨트롤타워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으로 최태원 회장은 사촌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취임했다. 이후 SK는 사업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인사에서는 SK수펙스추구협

의회와 SK(株)에 분리된 투자 기능을 SK(株)로 합치고 투자 인력 상당수를 계열사로 이동시켰다.

끝으로 SK스퀘어와의 합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장 부회장은 “현재 구체적으로 SK스퀘어와의 합병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SK스퀘어에도 주주와 독립된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향후 별도로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장용호 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이사회는 사내이사가 기존 4인에서 3인으로 줄고 사외이사 수가 5명으로 유지되면서 9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재편됐다. ▲재무제표승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 등 5개 안건도 통과됐다. SK그룹 친인척의 주식매각이 거론되며 주가하락에 대한 주주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낸드사업 ‘수익성 중심’ 전환... “다운턴시에도 안정적 운영”



곽노정 사장, AI 메모리 개발과정 소개
“내년도 HBM은 수급 타이트 할 것”

“다운턴이 찾아와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겠다.” SK하이닉스 주총은 생생형 인공지능(AI) 붐 이후 주역이 된 HBM(고대역폭메모리)에 관한 비전과 전략, 주주들의 질문으로 채워졌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한다는 현지 보도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다.

SK하이닉스가 27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수펙스홀에서 제7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곽노정 S

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AI 메모리 선두로써 입지를 굳히는 데 성공한 공을 HBM, DDR5로 돌리고 그간 개발 과정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곽 사장은 지난해 엔비디아(NVIDIA)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SK하이닉스가 9조원대 당기 순손실을 낸 사실에 대해 “매출 비중이 큰 D램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부진했는데, 엔비디아는 AI향 서버 내지 GPU 관련 제품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지난해 전체 D램 판매량 중 HBM 판매량은 한 자릿수 퍼센트지만 올해는 전체 D램 판매량 중 HBM(고대역폭 메모리) 판매 비트(bit) 수가 두 자릿수 퍼센트로 올라와 수익성이 크게 개선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내년 수주 전망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히 밝힐 수는 없으나 내년도 HBM 수급은 타이트(tight)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봤다.

전날 WSJ가 보도한 인디애나주 패키징 공장 설립에 대해서는 “확정된 내용은 없고 검토 중”이라며 부지 선정 예상 시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했다.

WSJ는 SK하이닉스가 40억 달러(약 5조 3800억원) 규모의 칩 패키징 공장을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 퍼듀대 인근에 설립하고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SK하이닉스의 칩 패키징 공장 부지로 인디애나주를 선정했다고 보도했는데, WSJ는 강력한 학문적 지원이 가능한 애리조나주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곽 사장은 주주 질의에 앞서 올해 경

영 전략 발표에서 지난해 손실이 컸던 낸드 사업의 방향성을 점유율 중심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감한 투자로 점유율을 확대 왔지만 시장의 성장 지연으로 재무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지속하되, 전체적인 낸드 투자는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토모티브, 게이밍,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등 고수익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전략 조정도 언급했다. 곽 사장은 “장기적인 성장과 재무 안정성 밸런스를 고려한 설비투자가 있을 것”이라며 “고수익 제품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제품은 적기에 개발되 양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이천 본사에서 열린 제7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 규모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발전포럼 참석을 위해 베이징 출장을 다녀온 것에 관해서는 “중국 현지 경영 환경 점검 차원”이라며 “중국 양회가 끝나기도 했고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를 점검해 우리 사업에 반영할 요소가 있는지 살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

SK온-페라리, 배터리셀 기술혁신 맞손... “전동화 여정 함께”

전문성 공유... 기술협력 확대

SK온과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Ferrari)가 배터리셀 기술 혁신을 위해 협력한다. 페라리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에 SK온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시작된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양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SK온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페라리와 ‘배터리셀 기술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SK온 이석희 사장, 성민석 최고사업책임자(CCO), 이장원



(왼쪽부터)이석희 SK온 사장과 베네데토 비나 페라리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배터리셀 기술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온

최고기술책임자(CTO)와 페라리 베네데토 비나(Benedetto Vigna) 최고경

영책임자(CEO), 에르네스토 라살란드라(Ernesto Lasalandra) 최고연구개발책임자(Chief R&D Officer)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각사의 전문성을 공유하면서 그간 이어온 기술 협력을 한층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셀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 목표다.

이석희 SK온 사장은 “세계 슈퍼카 시장을 선도하는 페라리의 전동화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양사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결합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두산에너빌리티, 항공용 엔진 개발 본격화

주총서 ‘항공기 엔진 제작’ 목적 추가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항공용 엔진 개발에 본격 나선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6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항공기 엔진 제작, 추진체 보조기 부품 제작, 정비와 판매 및 서비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는 이를 계기로 항공기, 특히 무인기 엔진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에 성공한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용 엔진은 기술 기반이 동일하고, 구조와 작동 원리도

유사하다. 비행체의 추력(물체를 운동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용 가스터빈의 핵심 요소는 고효율, 경량화, 작동 유연성이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고효율, 고효율, 안정성이 요구되고 항공용에 비해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설계, 제작 기술, 소재 기술 등 노하우를 항공용 엔진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BG 손승우 부사장은 “항공 엔진 국산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의 초석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